

‘제77대령호’ 어선사고 인명구조 및 수색에 최선을 다할 것

- 해양수산부 장관, 어선 사고 발생 보고 받고 인명구조 및 수색 신속 지시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 16일 07시 42분경 전북 군산 십이동과도 남방 2.6해리 해상에서 발생한 근해안강망어선‘제77대령호(35톤)’ 어선사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.

강 장관은 보고받은 즉시 “신속히 사고 선박으로 이동하여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고 지시하였다.

현재, 승선원 8명 중 5명을 구조하고, 해경 함정과 인근 어선 등이 사고 해역 주변을 수색 중이다.

△ (사고개요) '24. 9.16.(월) 07시 42분경 전북 군산 십이동과도남방 2.6해리 해상에서 근해안강망어선 ‘제77대령호’ 전복된 상태로 발견

* 총톤수 35톤, 총남 흥원 선적, 8명 승선

△ (08시 40분) 「연근해 어선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」에 따라 위기경보 “경계” 발령

△ (09시 30분 현재 피해현황) 8명 중 5명 구조, 3명 실종

담당 부서	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	임태 호 (044-200-5550)
		담당자	사무관	이강은 (044-200-5526)